



# 우리나라 糧食政策의 現況과 展望

極的인 生産增大에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우리나라 糧食資源의 生産

全 世界的으로 食糧不足現狀이 나타나고 있는 現 實情下에서 우리나라의 糧食資源은 亦是 低調한 生産 增加率로 滿足할만 하지 못하였다.

즉, 穀物類와 果菜類를 合한 우리나라의 總糧食資源은 1973年 現在 10,325.2千%인데 이는 8年前 즉 1956年の 生産量 8,891.7千%에 比하여 겨우 16.1%가 增加된 水準에 不過하다.

특히 우리나라 食糧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米麥類와 豆類 그리고 甘薯類의 75年度 生産은 總 7,162.9千%으로서 65年 보다 겨우 2.3%가 增加된 것에 不過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重要糧食으로 登場되고 있는 麥類와 甘薯類 그리고 雜穀의 生産은 오히려 1965年보다 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果實類와 菜蔬類의 生産은 1973年 現在 總 10,325.2千%에 達하고 있어 65年對比 67.7%의 生産增加를 보였다.

우리나라 糧食에서 占하는 比重으로 볼때 더욱 積

우리나라 糧食資源의 生産量  
(1965年度=100.0) (單位:千%)

穀 名	1965	1973	增加率
米	3,501.1	4,211.6	120.3
麥	2,136.0	1,952.6	91.4
豆	1,045.1	611.4	58.5
薯	120.5	104.3	86.6
雜	202.9	283.0	139.5
小 計	7,005.6	7,162.9	102.3
과	310.0	550.1	177.4
채	1,576.0	2,612.2	165.7
小 計	1,886.1	3,162.3	167.7
合 計	8,891.7	10,315.2	116.1

資料: 農水產部

한편 畜産資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肉類의 生産은 1973年 現在 186.8千%으로서 前年對比 1.2%가 增進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牛乳類의 生産量은 最近 그의 需要가 크게 增加되는 趨勢에 힘입어 1973년에는 104.1千%(前年對比 30.3%의 增加)에 達하였으나 달걀의 生産은 2.5百萬個로서 오히려 前年對比 10.4%가 減産되었다.

다음에 魚介類의 生産動向을 보면 漁獲量이 1973年에 1,686.5千%에 達하였으며 人工養殖에 의한 水

畜産資源生産量

單位：千%, 달걀：百萬個

品目別	年度別			前年比增加率(%)	
	1971	1972	1973		
肉類	쇠고기	39.5	40.2	44.9	11.7
	돼지고기	80.9	90.2	90.1	△0.1
	닭고기	50.0	54.2	51.8	△4.5
계	170.4	184.7	186.8	1.2	
우유	65.3	79.9	104.1	30.3	
달걀	2.3	2.8	2.5	△10.4	

(註) : 닭고기산출은 1.1kg=1수(생체는 1.5kg)

(資料) : 農水産部

産物の生産은 260.5千%, 그리고 水産加工品生産量이 모두 183.8千%이었다.

이중 漁獲量과 人工養殖에 의한 水産物の生産을 합하면 1973년의 漁介類生産量은 總 1,947千%에 達하지만 糧食群의 하나로서 激增하는 需要量을 充足시키기에는 未給한 生産實情이다.

魚介類生産量

(1969年度=100) (單位：千%)

品目別	年度別		增加率(73/69)
	1969	1973	
漁獲量	776.4	1,686.5	217.2
水産養殖量	86.4	260.5	301.4
水産加工品生産量	69.8	183.8	263.3
合計	932.6	2,130.8	228.5

資料：水産廳

그리고 肉加工品生産量은 1973년에 1,557.9千%에 達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소시지”가 1,299千%(全體의 82.4%), “햄”이 234千%(全體의 15.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餘他製品 즉 베이컨, 牛肉 및 돈육통조림의 生産比重은 全體의 3%內外에 不過한 實情이다.

육가공품生産量

(1972年度=100.0) (單位：千%)

品目別	年度別		增加率(73/72)
	1972	1973	
소시지	1,179	1,299	110.2
햄	142	234	164.8
베이컨	3.6	14	388.9
우육통조림	184.5	10	5.4
돈육통조림	2.2	0.9	40.9
계육통조림	—	—	—
合計	1,511.3	1,557.9	103.1

資料：農水産部

2. 糧穀需給動向과 糧穀導入의 現況

(1) 63년에 對比한 73년의 實態

政府에서는 農産物需給均衡을 이룩하고자 特別 糧穀增進에 온갖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糧穀需要로 아직 需給上의 不均衡을 打開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동안 政府에서는 糧穀資源増産 重點施策을 마련하고 農業用水確保, 品種改良, 地力増進等에 힘써 왔으나 植付面積(特別 田)의 減少 및 凍害로 生産量이 激減된다는가, 農村勞動力의 減少等 複合要因으로 食糧生産이 크게 鈍化 乃至 低下되고 있는 實情이다.

特別 耕地 植付面積을 보면 畚의 경우는 1968년에 1,289千ha에서 1973年度는 1,263千ha으로 약간의 鈍化를 가져오고 있으나 田의 경우 1968年度는 1,029千ha에서 1973年度는 978ha으로 크게 減少하고 있다.

이러하여 全體的으로 볼때 1968年度를 100으로 볼때 1973年度는 96.6「포인트」로 3.4「포인트」로 減少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개간·간척 및 야산개발等 農地의 外形의 擴大 보다는 經濟開發計劃의 修行을 통한 工業化의 進度 및 都市圈의 擴大等 即 住宅, 用紙, 工場敷地 및 道路網의 擴張等의 專用에 따른 結果이지만 앞으로는 政府의 「農地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을 施行하기 때문에 그 減少率이 漸次減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人口增加는 60年 24,954千人에서 '74年末

年度別 耕地 植付面積 推移

(單位：千ha)

年度別	田	畚	計	倍率
1968	1,029	1,289	25319	100.0
1969	1,028	1,283	2,311	99.7
1970	9,23	1,195	2,119	91.4
1971	1,006	1,265	2,271	97.9
1972	982	1,259	2,242	96.7
1973	978	1,263	2,241	96.6

註：1970年은 農業年次結果

資料：農業基本統計調查結果 (1973.10.1)

現在 33,4459千人으로 14年間に 8,505千人으로 늘어났으며 人口增加率は 1960年 年平均 2.96%에서 1974年 1.67%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開發途上國型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人口의 增加와 더불어 1人當 國民所得도 1960年 81\$에서 1974년에 513\$로 6.3倍의 增加를 示顯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人口增加와 所得增加은 米穀의 消費를 急激히 增加시키었는데 이에 關聯한 穀物等과 아울러 60年代의 糧穀需給動向을 보도록 하겠다.

60年代 前半期에는 쌀의 導入없이 僅少한 量이나 마 輸出까지 하는 反面 50萬%內외의 小麥導入을 爲始한 60萬%內외의 糧穀을 導入함에 그쳤으나 後半期부터는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事業의 成果에 이어 活氣찬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推進期를 맞이한 經濟의 飛躍段階에 접어들어 人口의 增加와 急激한 都市集中化 및 所得의 向上과 더불어 食生活의 多樣化가 이룩되어 쌀의 消費急增과 小麥粉 및 飼料作物의 需要增加가 加勢하여 쌀의 糧穀導入은 前半期의 60萬%에서 200萬%으로 急激히 늘어나게 되어 食糧自給面에서 一大警鐘을 울리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主食이 되고 있는 쌀에 있어서는 飛躍的인 經濟發展에 따르는 生活의 向上과 所得增大로 그동안 抑制되어 있던 쌀의 潛在需要가 顯在化함으로써 쌀의 소비가 急激히 增加되었고 거기에는 政府의 強力한 物價安定施策의 一環으로 推進되어온 對消費者低穀價政策에 따라 政府收買價格以下의 低廉한 固定價格으로 政府調節米를 年中 放出함으로써 쌀의 消費를 增加시킨데 있으며 이로 인하여 쌀의 1人當 消費量은 66年의 117.5kg에서 71年의 141.6kg으로 「피크」를 이룬 바 있었으나 72년부터는 強力한 節米施策이 奏効하여 72년에는 126.8kg, 73년에는 123kg으로 減少되었다.

糧穀需給推移를 보면 糧穀生産에 있어 64年度의 6,421千%에서 73年度에 6,942千%으로 增加한 反面 消費는 6,833千%에서 10,119千%으로 增加하여 消費增加率이 生産率 보다 上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糧穀 不足量은 64年度의 841千%에서 73年度는 3,271

千%으로 約 4倍나 增加하여 不足量을 外穀으로 導入하여 充當하였다.

糧穀需給推移

(1964年度=100.0) (單位:千%)

區 分	( ' 6 4 )	( ' 7 3 )	增加率 (73/64)
糧穀生産量	9,421	6,942	108.1
糧穀消費量	6,833	10,119	148.1
糧穀不足量	841	3,271	388.9

이를 穀種別로 보면 쌀은 64年度 生産量이 3,758千%에서 73年度에는 3,957千%으로 增加하였다. 消費는 64年의 3,709千%에서 73年度에는 4,296千%으로 增加하여 64年度에 쌀의 導入이 없었으나 73年度에는 437千%을 導入하여 需要에 充當하였다.

보리는 生産에 있어 64年度의 1,515千%에서 73年度에는 1,779千%으로 增産되었으나 消費에 있어서는 64年의 1,305千%에서 2,076千%으로 增加하여 64年度의 151千%의 導入規模가 73年度에는 350千%規模로 增加되었다. 특히 小麥에 있어서는 生産은 64年度의 309千%에서 73年度에는 162千%으로 減縮된데다 消費量에 있어 64年度의 896千%에서 73年度의 2,148千%으로 急增하여 導入規模는 64年의 607千%에서 73年度에는 1,835千%으로 增加하였다.

糧穀需給動向

(1964年度=100.0) (單位:千%)

區 分	1964年	1973年	增加率 (73/64)
쌀의 生産量	3,758	3,957	105.3
쌀의 消費量	4,709	4,296	115.8
쌀의 導入量	—	437	—
보리의 生産量	1,515	1,779	117.4
보리의 消費量	1,305	2,076	159.1
보리의 導入量	151	350	231.7
小麥의 生産量	409	162	52.4
小麥의 消費量	896	2,148	239.7
小麥의 導入量	607	1,835	302.3

資料: 農水産部

이와 같은 糧穀導入規模를 外貨「달러」로 보면 1976年 89,410千「달러」에서 1972년에는 298,775千「달러」로서 5年 동안에 334.2%가 增加하였다.

이와 같은 糧穀導入趨勢는 慢性的인 外換不足狀態下에서 外換의 浪費의 支出이 되며 結果的으로 經濟

糧穀導入用外貨額

(1967年度=100.0)

(單位 數量:千%, 金額:千\$)

區 分	1 9 6 7		1 9 7 1		1 9 7 2		倍 率 (72/67)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쌀	113	19,216	907	39,817	584	116,579	516.8	606.7
보리	—	—	—	—	254	24,464	—	—
밀	909	62,288	1,532	99,789	1,881	125,585	206.9	201.6
옥수수	49	4,310	383	26,249	460	27,698	938.7	642.6
기타	29	3,595	61	7,503	31	4,449	106.9	123.8
합 계	1,100	89,410	2,883	273,358	3,210	298,775	291.8	334.2

資料:農水産部 參考:1973年度 導入量 3,271千%

開發을 위한 施設財導入을 抑制케 하고 外換需給計劃에 蹉跌을 가져왔다.

따라서 糧穀導入은 國際收支를 惡化시켜 經濟發展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糧穀을 中心으로 하는 糧食構造에 벗어나지 못하고 開發途上國型的 食糧政策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結論으로 政府의 強力한 增産政策에 의하여 相當量의 增産은 되었음에도 人口 및 所得增加로 消費가 急增되어 營養攝取를 中心으로 한 食糧構造政策을 度外視한 傳統的인 糧食인 糧穀의 自給度는 쌀에 있어서 64年은 100%, 73年度 92.1%로 急激히 下降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보리 역시 64年의 100%에서 73年度에는 85.7%로 되었으며 小麥에 있어서 64年의 34.5%가 73年度에는 7.5%로 糧穀의 自給度는 漸次 加速하고 있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2) 73年度の 實績

다음은 73年度の 糧穀需給動向과 導入實績을 보도 하겠다.

먼저 1973年度 全體糧穀需給動向을 보면 12,460千%으로 前年과 비슷한 規模에 達하였다. 總糧穀需要는 次年度 移越量 2,251千%을 包含하여 12,460千%으로서 國內供給可能量(前年度 移越量+生産量)은 9,040千%으로 供給不足量은 3,420千%에 達하여 이는 外穀導入量으로 充當하였다.

다음 73年 實際糧穀導入 實績을 보면 總 3,271千%으로 當初推算보다 149千%이 減少되었으나 '72年 糧穀導入量 3,210千%에 비해서는 1.9% 增加된 셈

糧穀需給動向(1973)

(單位:千%)

需 要		供 給	
項 目	數 量	項 目	數 量
총소비량	10,209	전년이월량	2,098
(식량용)	(7,199)	생산량	6,942
(농가)	(3,486)	(쌀)	(3,957)
(비농가)	(3,713)	(보리쌀)	(1,779)
(관수용)	(205)	(밀)	(162)
(종자용)	(164)	(서류)	(676)
(가공용)	(1,600)	(옥수수)	(54)
(사료용)	(732)	(기타)	(314)
(감모량)	(292)	도입량	3,420
(소비대체)	(17)		
차년이월량	2,251		
합 계	12,460	합 계	12,460

資料:農水産部

이다.

이를 用途別로 보면 民需用이 2,425千%으로 全體 導入量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官需用이 808千%으로 24.7%, 그리고 나머지 38千%은 증여로 되어 있다. 또한 이를 穀種別로 보면 쌀이 437千%, 보리쌀이 1,797千%으로 前年度의 584千%, 1,881千%에 비해 各各 26.9%, 4.5%가 줄어 들었으나 콩 및 옥수수는 前年度에 비해 크게 늘어나 各各 74千%, 576千%을 導入하였다.

이 가운데 쌀과 보리는 官需用으로 導入하였고 소맥,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이 民需用이며 소맥분은 증여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보리쌀은 쌀과의 消費代替를 위해 '72年度에 처음으로 254千%을 導入한 이래 그 導入量이 점차 늘어나 '73年度에는 37.8%가 늘어난 350千%에

達하였다.

이와같은 糧穀導入政策은 慢性的인 食糧不足의 問題를 根本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方途는 아니었으며 反面에 莫大한 外貨를 支出케 되어 結果的으로 經濟開發을 爲한 施設財導入을 抑制케 하고 外換의 需給計劃에 蹉跌을 가져왔다.

### 糧穀導入實績

(單位:千噸)

穀物種類	用途別	1972		1973		增加率(73/72 %) (1972=100.0)
		數量	構成比	數量	構成比	
쌀	관수용	584	1.82	437	13.4	74.8
보리쌀	관수용	254	7.9	350	10.7	137.8
소맥	민수용	1,831	57.0	1,797	54.9	98.1
소맥분	증여	50	1.6	38	1.2	76.0
콩	관수용	—	—	21	0.6	—
	민수용	—	—	52	1.6	—
	소계	31	1.0	73	2.2	235.5
옥수수	민수용	460	14.3	576	17.6	125.2
용도합계	관수용	—	—	808	24.7	—
	민수용	—	—	2,425	74.1	—
	증여	50	—	38	1.2	76.0
합계		3,210	100.0	3,271	100.9	101.9

資料: 農水産部

### 3. 糧穀外的 糧食事情

糧穀外 糧食事情은 一般的으로 好調의 氣味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糧食生産量을 보면 고기류의 경우는 每年 相當量이 增加하고 있으며 우유류의 경우는 年平均 30.3%의 높은 增加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魚介類를 비롯 其他 糧食事情 역시 그 增加率이 커지고 있어 國內糧食資源은 그 開發與否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糧食中 돈육, 활선어, 냉동어, 참치, 사과, 버섯 등과 其他 農畜産加工等은 海外에 輸出하여 많은 外貨를 벌어들이고 있는 實情이며 每年 輸出量도 增加하고 있다.

돈육 경우부터 보면 돈육은 72年 5,662千달라, 73年 3,996千달라를 輸出하였으며 활선어는 73년에는

72年보다 17.5%가 增加한 16,995千달라. 냉동어의 경우는 오징어, 새우, 굴 등이 中心으로 이루어져 72年보다 2배가 넘는 27,075千달라를, 참치는 72年보다 17.2%가 신장한 79,749千달라, 사과는 72年 1,293千달라, 73年 3,265千달라 등을 輸出하였다.

이와같은 糧食들은 海外市場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등이며 이것 외에도 農水産, 畜産等 먹을 糧食이 國內에서 開發, 生産되고 있다.

### 糧食中 農水産物의 輸出實績

(單位:千달라)

品目	1972年度 輸出實績	1973年度 輸出實績	前年對比 增減率 (%)	主要輸出對象國
돈육	5,662	3,996	△29.4	일본, 홍콩
활선어	14,465	16,995	17.5	일본, 대만
냉동어	12,024	27,075	50.2	일본, 미국, 프랑스, 서독
참치	68,032	79,749	17.2	미국, 일본, 피지, 케냐
사과	1,293	1,159	△10.4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버섯	1,085	3,265	200.9	일본, 미국, 홍콩, 서독

資料: 關稅廳

### 4. 우리나라 糧食需要의 展望

우리나라의 糧食需要는 糧穀만이 年間 1,000萬%에 이르고 있으나 國內 生産不足으로 每年 300萬% 內外的 外穀을 導入하고 있으므로 主穀만이라도 自給하기 위하여 그 生産目標을 81年代에 두고 쌀 生産量을 72年對比 24.6%가 增加한 4,982千%을 計劃하였으며 보리 生産量은 72年對比 24.5%가 增加한 2,446千%, 豆類生産量은 72年對比 92.3%가 增加한 4,274千%을 生産할 計劃이다.

肉類의 경우는 1972年度 189萬%에서 1981년에는 483千%으로 2.6배로 增加할 것이 展望되며 牛乳의 경우는 1972年 84千%에서 1981年度에는 348千%으로 4.2배가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와같은 糧食의 增加는 人口增加와 所得增加의 주된 原因이 되어 消費增加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人口는 1972年 32,359千人에서 1981年度에는 34,803千人이 되어 1.1배의 增加가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한편 經濟成長에 의한 國民所得水準 또한 急激한

食糧需要展望

(單位:千噸)

區分	72	76	81
生 產	3,997	4,475	4,982
需 要	4,362	4,475	4,705
過不足	△584	—	277
生 產	1,914	2,190	2,446
需 要	2,081	2,190	2,030
過不足	△254	—	416
生 產	241	248	247
需 要	2,100	2,621	3,116
過不足	△1,881	△2,373	△2,592
生 產	64	53	36
需 要	503	740	1,062
過不足	△460	△687	△610
生 產	222	342	427
需 要	261	342	427
過不足	△31	—	—
生 產	102	95	95
需 要	102	95	95
過不足	—	—	—
生 產	6,590	7,403	8,233
需 要	9,409	10,463	111,435
過不足	△3,210	△3,060	△3,202

資料:農水産部 註:薯類는 除外

向上升 示顯하여 1972年の 300非線에서 1981年度에 는 1,000非線으로 増加함으로서 糧食에 對한 需要增 大는 加速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 밖에 農村人口 의 都市移動과 農村의 都市化傾向이 糧食需要增大의 重要한 要因으로 등장할것으로 보인다

肉類·牛乳의 需要展望

(單位:千噸)

區分	72(A)	81(B)	B/A(倍)
肉 類	189	284	2.6
牛 乳	84	165	4.2

資料:農水産部

所得·人口增加의 展望

區分	72(A)	81(B)	B/A(倍)
1人當國民所得	300非線	1,000非線	3.3倍
人 口	32,359千人	36709千名	1.1
(增 加 率)	1.6%	1.3%(年平均)	1.4%
農 林 漁 業	2.9%	4.7%(年平均)	3.7%

資料:企劃院

營養攝取面에서 본 우리나라 糧食需要의 展望

糧 食	1970年			1981年			總需要量倍率 (81/70) (1970年=100.0)
	1人 1日 供給量(g)	構成比(%)	全國民總需 要量(千噸)	1人 1日 供給量(g)	構成比(%)	全國民總需 要量(千噸)	
穀 類	590	60.3	6,700	505	37.0	6,766	100.2
粟	36.6	37.4	4,187	300	22.2	4,020	96.0
豆 類	164	16.8	1,876	120	8.9	1,607	85.7
雜 穀	51	5.2	684	60	4.5	804	137.7
雜 類	9	0.9	103	25	1.9	335	325.2
薯 豆	105	10.7	1,201	100	7.4	1,340	111.6
茶 類	25	2.6	286	30	2.2	402	140.6
蔬 菜	100	10.2	1,144	350	26.0	4,690	410.0
果 實	33	3.4	377	100	7.4	1,340	355.4
肉 類	23.0	2.4	263	30	2.2	402	152.9
鷄 卵	11.0	1.1	125	30	2.2	404	321.6
牛 乳	4.5	0.5	51	120	9.5	1,608	3,152.9
魚 介	64.7	6.1	740	55	4.1	737	99.6
기 他	4.1	0.4	46	12	5.9	161	350.0
雪 糖	17.4	1.8	199	15	12.1	01	101.0
合 計	977.7	100.0	11,182	1,347	100.0	18,049	161.4
總 人 口 (千名)	31,345			36,709			117.1
1人當 國民所得 (\$)	242			1,000			413.2
總 Cal	2,533			2,155			104.8
蛋 白 質 (A)(g)	73.9			81.9			117.6
蛋 白 質 (B)(g)	11.7			31.2			266.7
脂 肪 (g)	23.8			45.2			189.9
B/A (%)	16.0			35.0			—

資料:韓國生産性本部 算出

## 5. 糧食需要豫測展望에 나타난 特徵

營養攝取面에서 본 우리나라 糧食需要豫測에서 나타난 特徵을 우리나라의 糧食政策의 特性과 더불어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의 特徵: 1981年度의 糧穀의 全國民 總需要量은 政府의 強力한 糧穀增産計劃을 實施하지 않아도 現在의 穀物 需要量만큼의 生産만 하거나 充分히 充足하며 쌀, 보리 등은 남아돈다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특히 營養攝取面에서 본 우리나라 穀物 需要展望을 보면 1970年度 現在 쌀은 4,187千%, 보리는 1,876千% 등을 攝取하였으나 1981年度에 가서는 쌀은 4,020千%, 보리 1,607千% 등으로 오히려 減少한다는 展望이 신다. 그리고 밀과 雜穀의 경우는 '現在보다 各各 1.4倍, 3.3倍 程度가 增加하고 있다.

이와같은 첫번째의 特徵은 1981년에는 糧穀外의 糧食이 81年代의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量을 供給할 수 있을 때 現在의 穀物供給量 가지고도 穀物 需要를 自給될 수 있는 結果가 된다.

1981年度 糧食需要展望의 比較

(單位: 千%)

區 分	營養攝取面에 對한 糧食需 要展望		增 減 差 (A-B)
	政府의 食糧需 要(A)	營養攝取面에 對한 糧食需 要(B)	
穀 類	11,008	6,766	4,242
쌀	4,705	4,020	685
보리	2,030	1,607	423
밀	3,116	804	2,312
雜 類	1,157	335	822
薯 類	—	1,340	—
豆 類	724	402	25
計	11,435	8,058	2,827

註: (A)=農水産部 確定發表值 (B)=K.P.C. 算出

둘째의 特徵: 앞에서 본 바와같이 '81년에는 穀物의 경우 現在의 總需要構模로 自給할 수 있으나 菜蔬類, 果實類, 肉類, 鷄卵類, 牛乳類 등의 農畜産品 등은 政策에 依해서가 아니라 自發의 必要에 依해 1981年代를 向해 自然增加한 것으로 展望되나 所得水準 向上으로 오는 急激한 需要를 充足못해 價格의 急騰을 招來할 것으로 보인다.

1981年度는 現在보다 菜蔬類의 경우 4.1倍, 果實類의 경우 3.6倍, 肉類의 경우 1.5倍, 鷄卵類 3.2

倍, 牛乳類 3.2倍의 需要가 展望된다.

세째의 特徵: 政府의 糧食需要展望을 營養攝取面을 基準으로 하여 보면 쌀, 보리等 糧穀需要는 過多策定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政府가 展望한 '81년의 穀種別需要를 보면 쌀의 경우 4,705千%, 보리의 경우 2,030千%, 밀의 경우 3,116千% 등으로 豫測되나 營養攝取面에서 본 糧穀 需要는 쌀이 4,020千%, 보리 1,607千%, 밀 804千% 등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政府가 豫測한 穀物은 쌀이 685%, 보리 423%, 밀 2,312%이 過多하게 豫測한 結果를 보인다.

네째의 特徵: 營養攝取面에서 본 우리나라의 糧食 需要展望을 糧食構造面에서 美·日等の 先進國型과 比較하여 보면 '80年代에 가서는 先進國型的 糧食構

'80年代初의 年間 供給量 推算

(單位: 千%)

區 分	1973年 生産實績量	1981年營養攝 取基準總需要 豫測量	年間增減對比 (%)
穀 類	6,269	6,766	7.9
쌀	4,212	4,020	△4.6
麥 類	1,953	2,411	23.5
雜 類	104	335	222.1
薯 類	611	1,340	119.3
豆 類	283	402	42.0
菜蔬類	2,612	4,690	79.6
果實類	550	1,340	143.6
肉 類	187	402	114.9
鷄 卵 類	125	402	221.6
牛 乳 類	104	1,608	1,446.2
魚 介 類	1,870	737	△60.6

資料: ① 1973年度 生産實績은 農水産部

② 1981年 豫測量은 KPC推算

造에는 아직도 未及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80年代 後半에 가서는 겨우 우리나라는 先進國型的 糧食構造에 接近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結論의으로 우리의 糧食構造는 其間經濟開發에 依한 所得增大와 糧食攝取에 對한 再認識으로 後進國型에서 脫出하는 瞬間에 있으나 先進國型으로 한발을 드러놓는 것은 '81年代가 되어야 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先進國型的 糧食構造에의 接近에 是 現 所謂食 糧政策의 再檢討와 一大 轉換이 要求된다.